

일제 선전정책 매개체 '포스터'에 담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포스터로 본 일제 강점기 전체사

최규진 지음

일제강점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규정은 달라진다. 대체로 '식민지 근대'라고 한다. 그러나 '모던'으로 해석되는 근대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근대에 식민지까지 붙여졌으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포스터는 일제의 선전정책을 대표하는 매개체였다. 일제가 포스터를 제작하고 배포했던 시기는 1915년부터였다.

포스터에 담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책이 나왔다.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포스터를 분석한 '포스터로 본 일제 강점기 전체사'는 매체와 문헌에 실린 포스터를 조명한다.

최규진 중앙대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최고교수는 그동안 사회실천연구소와 역사학연구소에 참여하면서 역사 대중화와 관련된 책을 발간해왔다. '이 약 한번 잡춰 봐!', '근대를 보는 창 20' 등을 펴냈으며 일상생활사 관련 논문을 써왔다.



최규진 지음

이번 책을 쓰기 위해 저자는 10년이 넘게 일제 강점기 매체와 문헌에 실린 포스터를 수집했다. 저자는 "포스터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긴다. 이제 그 누구도 문자 사료만이 역사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문자(非文字) 사료도 문자 사료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고 말한다.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는 1880년 무렵 화려한 옥외 포스터가 등장했다. 파리를 비롯해 뉴욕, 베를린 거리에 광고탑과 빌딩 벽면 등 옥외 게시 장소가 생겨났다. 당시의 포스터는 일종의 '거리의 미술관'이었다고 한다. 아름다운 대형 포스터는 '시각예술'의 방편으로 수집되거나 거리가 되기도 했다.

1차 세계대전은 포스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징집이나 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 물자 제공 등을 촉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됐다. 흔히 말하는 '대전포스터'였던 셈이다. 이전의 포스터가 예술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면 전쟁 시국에는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 매체'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또한 선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했다. 그들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승리했던 주요 요인으로 선전전인 큰 역할을 했다고 믿었다.

일제의 선전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맞물려 선전기술도 정교해졌으며 본격적인 문화동지화 시작됐다. 일본의 선전정책은 세 시기로 나뉘진

행했다.

제1기는 1905년 통감부 설치부터 3·1운동이 발발한 1919년까지다. 이 시기는 언론을 통제했다. 제2기는 근대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 정책을 펴던 때로, 1920년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다. 제3기는 전쟁을 위한 선전에 집중했던 시기다.

일제의 선전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삶의 방식에 개입해 조선인을 황국신민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제는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잘 끄는 곳에 포스터를 배치해 선전의 극대화를 노렸다.

포스터에 삽입한 표어도 등장했는데 이들은 '확성정치'를 '전력증강, 산업전사에게 보내는 소리의 탄환'이라고 강조했다.

포스터 중에는 상업활동을 위한 것도 있었다. "오늘날 장사치고 어느 것인들 선전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업종에서나 포스터로 선전하는 것을 고려했다"와 같은 내용은 그러한 예다.

재일 조선인 사회에서는 '저항 포스터'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오사카 신간회지회 발췌 포스터에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한 민족협동전선체"라고 신간회가 소개돼 있다.

저자는 "포스터를 디딤돌로 삼아 재미있고 풍요롭게 일제강점기의 '전체사'를 이해하는 길로 들어설길 바란다"며 "시대 이데올로기를 지배적으로 만들려 했던 일제의 프로파간다를 오늘날의 자본주의 프로파간다에 빚대어 생각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언급한다. <서해문집·4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제는 식민통치 기간 '함께 번영하고 즐기자'는 뜻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선전정책으로 활용했다. 사진은 1921년 조선총독부가 배포한 포스터. <서해문집 제공>



일제는 식민통치 기간 '함께 번영하고 즐기자'는 뜻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선전정책으로 활용했다. 사진은 1921년 조선총독부가 배포한 포스터. <서해문집 제공>

마주

최은미 지음

대산문학상, 젊은작가상, 현대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자신만의 소설세계를 개척해가고 있는 최은미 작가. 최 작가가 펴낸 두 번째 장편소설 '마주'는 6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다.

조혜진 소설가는 "이 소설은 우리 모두가 지나온 팬데믹 시대를 첨예하게 그리면서도 타인을 부수면서 스스로 가까이 무너져 내려 가는 인물들의 날선 충동을 깊숙이 파고든다"며 "좋은 소설이 대개 그렇듯 최은미의 '마주' 역시 개인의 불안과 외로움을 펼쳐 보이는 데 그치지 않거나 공동체의 뒤편에 대한 질문을 아우른다"고 평한다.

작품은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던 2020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당시 고립된 이들은 더욱 고립되고 단절된 이들은 더욱 단절되는 상황에 처해진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렬하고 산뜻한 문체로 그려낸다.

캔들과 비누를 만드는 공방을 운영하는 나리는 상가건물에 '나리공방'을 연다. 부푼 꿈도 잠시 얼마 후 막대한 코로나는 무차별적으로 퍼지게 된다. 손님이며 또래 아이들을 키우며 친해졌던 수미가 확진되면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수미의 이동 경로 가운데 하나로 나리공방이 지목되면서 세 들어 있는 상가 건물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다.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다. 기자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리는 과호흡증세로 병원에 실려가는데...

소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인물이 겪는 고통과 힘겨움을 특유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특히 인물들의 마음을 헤집어 속내까지 드러내는 작가의 문장은 무거우면서도 일면 경쾌하기도 하다. <창비·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단순한 그림, 단순한 사람 장욱진

정영목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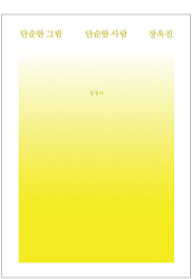
여인과 아이, 산, 집, 가족, 까치와 나무, 해와 달. 화가 장욱진의 그림에는 한정된 소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일명 장욱진의 오브제들이다.

독보적인 작품세계로 주목받았던 장욱진은 이종섭, 김환기, 박수근, 유영국과 함께 한국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가 그린 작고 예쁜 그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적 모더니스트'로 불리는 화가 장욱진의 미술세계를 살펴보는 책이 나왔다. '단순한 그림, 단순한 사람 장욱진'은 정영목 서울대 명예교수가 미술사가이자 평론가로서 그동안 발표해 온 화가 장욱진에 관한 글들을 모아 100여 점의 그림과 함께 엮은 책이다.

저자는 장욱진의 작품세계를 흔히 얘기하는 거처의 기준이 아닌 심상의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자전적이며 이상적인 성격의 작품들은 삶을 바탕으로 한 주제와 조형적 독자성이 근간임을 강조한다.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 역시 화가의 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장욱진이 그린 인물 그림에는 특히 여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가 그린 여인들은 어머니와 부인, 딸 등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가족이나 주변 여인들의 특징을 전통적인 여인상으로 그려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전통적인 조형요소들은 시각적인 외형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닌 순수함과 간결함의 원시적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한국적인 정체성'을 말할 때 그것은 곧 작가 자신의 정체성이며 작가의 독창성과 연결된다. 장욱진의 작품은 한국적이기 때문에 독창적인 게 아니라 독창적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이다." <소요서가·2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기본편

초명 지음

올해 초 티빙에서 선보인 웹 다큐 'MBTI vs 사주'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나'를 규정하고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은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한 MBTI와 전통의 강호 사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MBTI 이전에 사주·팔자, 즉 명리학이 오랜 시간 존재해 왔다.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받으며 수천 년 간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지하는 수단이 된 명리(命理)에는 독자적인 가치가 깃들여 있는 듯하다.

대기업 홍보실에서 수년간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 명리학 역술서를 출간해서 화제다.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기본편'이 바로 그것.

저자 초명은 '대한민국 명리학의 거목'이라고 불리는 명리학자 강현의 제자로 수년간 깊이 있게 공부했으며 유튜브 채널 '명리커뮤니케이터 초명'을 운영 중이다.

"명리학은 한 개인을 둘러싼 자연의 질서와 잠재력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다가올 미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삶의 유용한 도구이자 무기다."

책은 명리가 단순히 사람의 출생 연월일시를 기반으로 음양오행의 배합을 판단해 길흉을 점지는 도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성장과 생존전략, 인간의 무의식 등을 결정하는 도구가 명리학의 시주 구성, 병화과 정화, 갑목과 을목 등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명리학으로 '나'를 지키는 전략까지 제시한다.

제목에서 '기본편'을 표방하는 만큼, 책은 다양한 예시와 개념설명을 통해 입문자에게도 쉽게 명리학을 풀어낸다. '십성'을 자동차에 비유하거나, '형과 살' 등 명리학의 기본 개념을 쉽게 풀어낸다. <물리김이·2만45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2월호

2023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구멍가게가 사라진다

- 추억의 박물관 구멍가게, 우리 곁에 온기로 머물러 주길
- 거기 늘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동네 구멍가게'
- 그리움의 풍경, 책과 영화로 만나

맛과 함께
만남을
영광
여행

맨발 숲길
해안 도로
블로그 유적

천년가람 불갑사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물우산 행복숲 맨발 황토길 | 침산 타워 | 백수해안도로
모시떡의 변신 '다솜모시송편' | 2대 지켜온 '법성포 뉴타운클럽'
서해 바라보며 노을 즐기는 카페 '셀부르'

화제의 문화 현장
호남이 낳은 국민가수
고흥 '남진 트로트기념관' 개관

송년 기획
2023 문화계
결산

코로나팬데믹 통과한
예술의 체취 더 진했다



에ditorial
40년 동학연구 한길, 역사학자
박맹수
"대한민국 대전환, 동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감각 깨우는 미술관들
예술 힐링 여행지
강원도 강릉&양구



특별기획 - 新전남관광여지도
한해 마무리는 전남에서
전남 해님이 명소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대한민국 맛의 수도,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연인의 거리'



호남의 누정
광주 관덕정
'할쓰기'로 덕행 살피는
심신수련의 전통 공간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호남의 전사-황영성 초대전
전남도립미술관 '우주가족 이야기'전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①
조각 빛다 흙에서 새싹 난 작품
국전서 '대통령상', 조각가 박병욱

오동진의 '시내마역사' @
돈·권력과 '삼위일체' 마약,
영화와 세상을 증독시키다